

# 물가 상승률 못따라가는 예금금리 은행에 돈 맡기면 되레 손해

###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 이자소득자 깊어진 시름

직장인 김모(34·광주 서구 치평동)씨는 최근 정기적금을 들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1년 만기 적금의 금리가 연 4.4%

김씨는 "세금을 감안하면 정기적금 금리가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친다는 생각에 적금 가입의사를 접었다"며 "적립식 펀드나 상호저축은행 등의 적금에 돈을 맡겨야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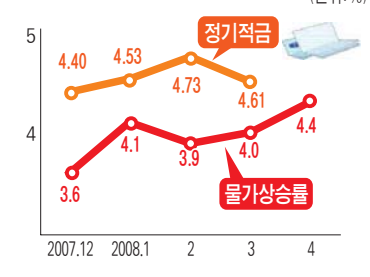
최근 물가 급등과 저금리 기조 등이 맞물리면서 정기적금 등 시중은행의 실질금리가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마이너스(-)' 시대에 진입했다. 특히 3월 이후 은행들이 예금금리

를 일제히 끌어내린 반면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이자소득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물가와 이자소득세 등을 감안하면 은행에 돈을 맡길수록 손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4.4% 올랐다. 전남도 전년 동월대비 물가 상승률이 4.3%에 달하는 등 지역 내 물가가 4.0%대 이상의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이 4.0%일 경우 예금금리의 손익분기점은 4.73%에 이른다. 이자소득세(15.4%)를 감안할 경우 금리가 최소한 4.73%를 넘어야 물가보다 높은 수익률을

### 광주 물가상승률·정기적금 금리 추이



\*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기대비, 정기적금은 연간 기준

올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들의 정기적금 금리는 대부분 손익분기점을 밑돌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 1·2월 자금경색으로 고금리의 특약예금을 앞다퉈 내놓았지만 3월 이후 다시 금리를 낮추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과 농협 등이 판매중인 39개 정기

적금의 평균금리는 만기별로 1년(4.48%), 2년(4.64%) 등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은 정기예금과 주택청약예금 등도 비슷하다. 현재 국내 40개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6개월(4.50%), 1년(4.62%) 등으로 손익분기점에 못 미친다.

특히 주택청약예금은 1년짜리 금리가 연 4.38%에 그치면서 '무용론'까지 일고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미분양 사태로 청약혜택이 유명무실화된 데다 실질금리까지 '마이너스'가 되면서 실용성이 낮아진 탓이다.

이밖에 은행들이 최근 개발한 고급금리여좌와 상품도 대부분 금리가 연 4.6%를 밑도는 등 예금상품의 평균금리가 물가급등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2008 부산국제모터쇼'에 출품된 기아차 콘셉트카 '소울(SOUL)'. 이 콘셉트카는 'AM' 프로젝트로 이어져 오는 9월부터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대량생산될 예정이다. (기아차 제공)

## 부산국제모터쇼 디자인·신기술 선도

# 기아차 "글로벌 일류 메이커 도약"

기아자동차가 '2008 부산국제모터쇼(2~12일)'를 계기로 디자인과 기술력을 선도하는 글로벌 일류 메이커로 도약한다'

기아차는 '2008 부산모터쇼'에 최초로 공개되는 콘셉트카 'SOUL' 3종사를 비롯, 기아차의 디자인 미래를 표현한 콘셉트카 등 완성차 16대와 신기술 7종을 출품했다.

기아차 조남홍 사장은 일반 공개에 앞서 내외인 기자단을 위해 열린 프레스 데이 행사에서 "기아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디자인'과 '신기술'의 만남이 변모시킬 미래의 자동차 트렌드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차 자동차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 디자인 총괄부사장은 "디자인이 고객의 마음을 감동시

### 고객 감동 트렌드 제시

### 콘셉트카·양산차 선봬

킬 수 있고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며 "부산모터쇼에서 디자인경영의 비전을 설정하고 성공적인 브랜드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기아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시테마는 'The Pioneer of Designology (Design & Technology)'로, 디자인과 기술력을 선도하는 글로벌 일류 메이커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기아차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기아차 측은 설명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전시면적은 2천㎡이며, 오피러스 등 최고급 모델을 선보이는 '프리미엄 존', 모닝 등을 주축으로 기아차의 'Fun'한 브랜드 이미지를 반영한 '핀 존', 가족차의 대명사인 그랜드카니발을 주축으로 한 '패밀리 존', 시대를 선도하는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이는 '신기술 존' 등 4개의 전시장으로 구성돼 있다. 기아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콘셉트카 4대, 쇼카 4대, 양산차 7대 등 16대의 완성차와 신기술 7종을 선보였다.

콘셉트카로는 출시 전부터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소형 정통 크로스오버 'SOUL' 3종사와 지난해 프랑스 파리 모터쇼에서 첫 선을 보여 호평을 받은 4인승 쿠페 스타일의 'KEE'를 전시했다.

## 환경법 위반 건설사

### 1년간 입찰 불이익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건설업체는 앞으로 1년간 정부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조달청(청장 장수만)은 2007년도 하반기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159개 건설사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로부터 넘겨받고 공공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향후 1년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1점까지 감점을 받게 된다. 신인도 감점은 2회 및 3회 위반업체 13개 건설사가 -1.0점, 나머지 1회 위반업체 146개 건설사는 -0.5점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오이·오리고기 많이 드세요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왼쪽에서 두번째)는 지난 2일 오이·오리데이를 맞아 광주시 무등산 중심사 입구에서 등산객들에게 오이와 오리고기 훈제를 무료로 나눠주며 소비촉진 활동을 펼쳤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 시중은행 BIS 비율 10%대 하락 자본건전성 '빨간불'

### 올해부터 '바젤 II' 시행

올 들어 '바젤 II(신BIS 협약)'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광주은행을 비롯한 국내 시중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대부분 10%선으로 떨어졌다고 나타났다.

4일 금융권의 1·4분기 실적자료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광주은행의 BIS비율은 10.4%로, 지난해 말(10.91%)에 비해 0.51%p 하락했다.

광주은행의 BIS비율이 낮아진 것은 올해부터 '바젤 II'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의 건전성 기준 자체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광주은행은 올 1·4분기에 40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 지난해 1·4분기보다 16.9%(59억원) 증가하는 등 실적과 BIS비율 추이가 대조를 이뤘다.

이같은 상황은 주요 시중은행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우리은행의 1·4분기 현재 BIS비율은 10.0%로 지난해 말보다 1.6%p나 떨어졌다. 하나은행과 기업은행도 BIS비율이 각각 10.24%와 10.45%로 나란히 10%대에 진입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각각 1.51%p, 0.66%p 떨어진 것으로, 자본확충 등 자본건전성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BIS비율 = 자기자본 대비 위험자산의 비중을 의미한다. 자본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통상 10%를 넘어야 우량은행으로 평가된다.

로도복권 (제283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6 8 18 31 38 45	42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3,137,224,600
2	5개 숫자+보너스 일치	65,358,846
3	5개 숫자 일치	1,478,429
4	4개 숫자 일치	59,206
5	3개 숫자 일치	5,000

팝콘복권 (제106회)		
등 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3주 578974
2	1억	3주 913021
3	1천만	5주 935766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63878
5	50만	각조 7602
6	2천	각조 81
		각조 12
		각조 53
		각조 1
7	1천	각조 9
		각조 6

## 한국 재산세 부담 수준 OECD 평균 1.9배

### 부동산 세 부담 높아 회원국 중 6위 랭크

우리나라의 재산 관련세금 부담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와 OECD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 관련세금의 비중은 2005년 기준 1.9%로 전년인 2004년과 같았다.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재산세 비중은 1985년 1.6%에서 1990년 1.9%로 상승한 뒤 1995년 1.8%, 2000년 1.9%, 2005년 1.9% 등으로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산세 비중은 2004년 2.8%에서 2005년 3.0%로 0.2%포인트 상승하면서 OECD 평균의 1.9배 수준에 달했고 OECD 회원국 중 6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산세 비중은 1985년 1.5%, 1990년 2.4%, 1995년 2.9%, 2000년 2.9%, 2005년 3.0% 등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OECD의 재산 관련세금(Taxes on property)은 통상 부동산 관련 등록세·취득세·재산세 뿐 아니라 증권거래세·인지세 등을 모두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재산 관련세금 비중이 높은 것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고 주택거래 관련 세수비중이 높으며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2005년 기준으로 영국의 GDP 대비 재산세 비중이 4.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프랑스(3.5%), 캐나다(3.4%), 룩셈부르크(3.3%), 미국(3.1%) 등도 우리나라보다 재산 관련 세 부담이 높았다. 스페인(3.0%)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호주(2.7%), 일본(2.6%), 아이슬란드(2.5%), 아일랜드(2.4%), 스위스(2.4%), 벨기에(2.2%), 이탈리아(2.1%), 네덜란드(2.1%)는 OECD 평균보다 재산세 부담 수준이 낮았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한국인포데이터	전남본부	광주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6 062-360-0503
월드엔		제조업 경리업무(회계업무) 경력자	고졸/경력3년	1400~1600	05/07 062-945-8798
㈜유로넷	[주5일/2300만원]SK텔레콤 미납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400~2600	05/07 011-299-7000
㈜시은디자인	[광주]2D TV시리얼 애니메이션 감독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5/09 02-2025-2240
전자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 홍보담당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9 062-975-7028
㈜동원중공업	[전남]조선업체 기술직 관리자 경력직		초대졸/경력5년	3400~3600	05/10 055-336-2000
광주열린병원	종합검진실 간호사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5/10 062-610-9100
현대리빙	매장관리, 제품 입고 관리직(점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5/10 062-944-0129
디알시스템	오리클 유지보수 신입/경력직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5 062-528-9989
비스컴	카피라이터 및 AE		초대졸/경력무관	1000~1200	05/15 010-8625-2580
문화공방디케이비	[광주]전시,공연에 관련된 제반업무 담당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5/16 02-595-6277
동부생명	[광주]지점별)여버서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5/17 062-226-0057
㈜유동개발	[광주]건축시공기술자		초대졸/경력무관	2200~2400	05/20 02-558-9629
전남대학교 자동차시스템	[국비무로]08년 이공계 현장연수사업 연수생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1 062-530-0450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 어린이 '억대주식부자' 50명

### 100억 이상 3명... 허석훈 군 299억 1위

최근 재벌가 자녀들에 대한 주식증거 및 상속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1억원 이상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어린이가 5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세계 전문사이트인 재벌닷컴(www.chaebul.com)이 상장사 대주주 자녀 및 친인척중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2일 종가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지방부가자 1억원 이상인 어린이 주식부자는 모두 51명이었다. 보유 자본의 가치가 100억원 이상인 어린이 주식 갑부는 3명이었다고, 10억원 이상인 어린이도 12명이나 됐다. 허용수 GS홀딩스 상무의 아들 석훈(7)군이 299억원으로 어린이 주식부자 1위였고, 허태수 GS홀딩스 사장의 딸 정현(8)양이 174억원으로 2위였다. /연합뉴스

## 어린이 선물 '휴대전화' 1위

### 게임기·MP3·웃도 받고 싶어요

어린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로는 단연 휴대전화가 1위로 꼽혔다. 4일 어린이 전문포털 야후 꾸러기(kids.yahoo.co.kr)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어린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어린이날 이런 선물 받고 싶다'에 전체 응답자 1만6천661명 가운데 37%가 30%(5천042명)의 지지를 받아 2위를 차지했으며, MP3와 웃이 각각 9%(1천555명), 4%(811명)로 3위,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 '어린이날은 몇살까지 일까요?' 라는 이색적인 질문에는 1천289명이 참여한 가운데 40%(516명)가 '초등학생'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